

성균관 **나남이**!

그 첫번째

통권 03호

발행인 : 이 치경

발행일 : 1999. 4.1 목요일

발행처 : 성균관대학교 제15대 총여학생회

제 작 : 미래기획(성대 복지회관2층) 0331-290-5469

지 면 안 내

2면

- 3.8 여성 노동자 대회
- 경제 위기는 여성의 위기인가...

3면

- 그것이 알고 싶다. 세터 성폭력?
- 여세터를 다녀와서

4면

- 문화 엿보기 / 여성 rock 밴드
- 상반기 총여학생회 사업 소개.]
- 페미니스트 저널 # 지를 아시나요???

여성 노동자 힘찬전진!



총여학생회 모집광고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생활하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총여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십시오. 총여학생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앙~앙
총여학생회가 어디야?



수딩?

뛰하는 곳이지?



새들아~!



날 따라와!

총여 집행부원 공개모집

여성문제,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함께 고민을 풀아갈 총여학생회가 있습니다.
99 새내기들은 물론이고 98, 97... 한해기도 환영합니다.
총여학생회 사업들을 함께 준비하고 세미나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키워 나갈수도 있습니다.
여학생회라 남학우들은 오기가 힘드시다고요? 걱정마세요. 남학우들은 여성문제에 있어서 '적'이 아닌 함께 고민해야할 '친구'입니다. 총여학생회는 학생회관 2층에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기획글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15회 한국여성대회

“평등·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다함께 가자!”

‘한국여성대회’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99 여성권의 디딤돌과 걸림돌>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여성축제로 지난 3월 7일 KBS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성대회에서는 늘 무거운 잡는 어른들(시민단체장, 국회의원 등 너나없이)이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광경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행사인지?

91주년 세계여성의날-올해도 평화롭지 않은 우리사회

1908년 3월 8일 1만 5천명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위하여 대대적인 행진을 벌인 것을 계기로 매년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로 정해졌을지 모르나 91년째 되었습니다. 전체의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또한 지난 한해 IMF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성우선정리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 결혼희생의 부활, 10만여명에 달하는 실직 여성가장의 증가는 대다수 여성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평등없는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세계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남녀 차별과 여성폭력 그리고 부정부패와 환경파괴는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 평등·평화·인권·환경이 중심이 되는 남녀평등·참여민주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대회의 참가자들은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한 국민의 기초생계 보장
- 성차별적 감원, 해고 중단과 무분별한 비정규직화 규제
- 가부장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호주제도 폐지
- 2000년까지 정치·공직·정책결정기구에 30% 여성할당제 도입, 여성정책전담 부서의 위상과 권한 강화



제1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는 25년여 동안 섬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와 여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강명순(姜命順, 부스리기선교회 협동총무, 빈민여성교육선교회 원장)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디딤돌 ■ ’99년 한해동안 여성권익향상에 도움을 주셨던 개인(또는 단체)

1. 참언이론 소총재로 여성노인의 인권문제 부각한 김창자, 이시형 할머니
2. 한국 최초로 농촌여성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한 이송호 강원도 안재군수
3. 담배 판매를 무효화하고 정당법에 여성할당제 30% 명시로 정책화한 김희선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장
4. 여성할당 부서가 구조조정되는 것을 노동조합 단결로 막아낸 한국보훈병원 노동조합
5. 가부장적방위법 정착화에 기여한 다류프로그램 SBS문상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 폭력남편·범음혼 막을 수 있는가? (연출: 어금임, 민인식/일 자: 98년 12월 6일)

걸림돌 ■ ’99년 한해동안 여성권익향상에 지해되었던 개인(또는 단체)

1. ‘결혼약속하면 성폭행도 용서할 수 있다’고 관료내선 송기홍 판사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
2. ‘정리해고 0순위=가정여성’이라는 기업의 반여성적 공식 이행한 원월희 회장 (농협중앙회 회장)
3. 종교인으로서 소외된 자들의 인식치이기를 포기하고 노조탄압·여성 성폭행 자행한 원주변 원장(대진정보병원 원장)
4. 시대착오적 ‘순종·안내 여성관’ 부르는 안양극장의 무대보, 엄영환(방송인)
5. 광고 통해 왜곡된 여성이미지 심화시킨 ‘걸리버’ 허버트 PCS폰 광고주, 김영환 사장 (현대전자 사장)

여성권익 향상의 디딤돌과 걸림돌에게 많은 응원과 아유 보내셨나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와 한국여성노동자대회는 3월 8일 전후로 매년 진행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같이 갈 수 있겠죠?

사설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경제위기는 여성의 위기인가?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지난 5개 월간 증폭되고 있는 가부장적 보수담론은 여성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남성가장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라는 여성우선해고의 논리와 위기의 가정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부도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는 모순적 요구, ‘실직한 가정의 기살리기’를 위한 아내의 헌신에 대한 강조는 IMF 시대 살아가기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혹독한 것임을 보여준다.

최근 여성에게 강요되는 경제위기 관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몇 가지 짚어보자.

여성들이여, 남성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라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를 가정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 우선해고의 공공연한 논리로 사용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 여성노동자 해고 1순위는 남성에게 비해 생계 책임이 달하고 생산성이 낮다는 왜곡된 논리로 정당화된다. 뿐 만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여성들은 남성 가장들의 직업을 뺏는 ‘이기적’인 여성들로 취급된다. 50%에 달하는 여성 취업률은 여성의 취업이 단순히 자아실현이나 생계보조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실업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대책은 남성 실업자에 국한될 뿐 우선적으로 해고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실업은 은폐되고 있다. 그러나 돈은 벌어야 되지?

반쪽 월급만 받아라

다음으로 남성 가장의 감봉 또는 실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업주부도 소득활동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여성우선해고의 논리는 남성에게 일자리를 양보하고 알뜰한 전업주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지만 가정경제 위기는 기혼여성들의 생계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매스컴을 통해서 주부들의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남성’도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여성이 구하기는 더욱 어렵고 가정 경제의 위기는 창업을 위한 소자본의 동원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여성들에게 심한 좌절을 가져다 주며,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족 내에서의 무조건적 희생은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남편 월, ‘집에만 있었더라면!’

마지막으로 IMF직후 나타난 ‘남편 기살리기’ 캠페인은 가부장적 권위의 회복과 여성의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 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알뜰한 살림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되며, 이는 정리해고로 인한 취업 주부들의 가정으로의 복귀와 함께 전통적 여성 역할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실직한 가정의 좌절과 분노는 가족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성들이 인내하는 지대로 대처하기를 요구하는 방송 캠페인은 어처구니가 없다. 가장의 권위회복과 여성의 무조건적 인내와 순종은 실업대책도 아니며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대책은 더욱 아니다. 여성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강조는 남남이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강조하면서 극복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과 감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보수 담론은 경제위기에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왜곡시키거나 은폐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여성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실업에 대응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연대를 꾀하는 한편, 가정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기혼 여성의 소득활동 증가에 의한 전통적 성별분업구도의 점진적 해체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들은 타격이 덜할 것’이라거나, ‘여성들이 양보해야 한다’던가, 혹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일자리를 뺏았다’거나 하는 보수적인 담론에 공모하지 않고, 가부장적 권위 회복이 경제회복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저항 담론의 형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남녀평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여성의 이해(interest)가 남성 가장의 이해로 대변되고 전체가족의 이해로 환원되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맞서는 여성들의 노력은 과연 이기적인 것일까?

99년 총녀학생회의 실곤들의 한마디!!!

총녀학생회장: 뉴타리 97들과 말하는 것도 지겹고, 학생회실에 있어봤자 그걸들이 그걸들이군요.

새내기 여러분, 당차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새나기를 기다리는 이상한 집단(?)이 있습니다!

정책국장: 대학... 자유와 진보, 낭만의 장일며? 방탕함과 욕지거리, 갈매의 장일며?

허기나들이지 마... 뽕X여, 대학은 내가 다니다! 열심히 삽시다!

기획국장: 망설이지 마! 어디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나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도전해 보겠어! 용기있게 삽시다.

사무국장: 개간 후 벌써 한 달이? 이제서야 만나게 되어서 좀 심심하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대학, 이미 헌신은 해줬다구요?

그렇다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총녀학생회로 오시면 담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보통신국장: 총여의 유일한 남학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멀리서 궁금해만 하지마시고, 또 불확정한 인간들이라고 비웃지 마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딪혀 보십시오. 함께하면 모입니다. ...무언가...

만평



뒤집기 만화

여학생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다녀와서...시스템경영공학부
99학번 김민경그것이 알고 싶다 -
새터 성폭력 내규?!

새터 성폭력 내규? 그게 있었어?

99년도 새터부터 '성폭력 근절'과 '대학 성문화에 대한 대안 모색'이라는 목표 아래 새터 성폭력 내규가 실시되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그간의 문제의식을 통해 내규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중운(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장단, 총여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총학생회장단, 총여학생회장단, 각 단대장 참가)에서 검토, 학운(중운, 각 단위 학생회장참가)에서 심의, 통과되었다. 이후 재학생 교양을 통해 내규에 대한 홍보가 있었다. 새터 장소에서는 각 밤마다 내규에 대한 리플렛을 부착하고 홍보를 위해 뱃지를 나눠주었다.

행동을 제약하는 틀? 그렇다면?

내규가 제정됨으로 학우들은 많은 반응을 보였다. 우선 새내기들의 반응은 '성폭력'이 대학에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이다. 답은? 물론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성폭력(흔히 강간이나 음을 더듬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은 물론이고 집단적인 성폭력(한성을 비하하는 언어, 정적기로 불리는 음란가요 등)까지 대학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재학생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내규에 대한 거부감 또는 무덤덤함이었다.

교양을 진행하면서 보았던 학우들의 모습은 '내규란 것이 생가나 보다'라는 무덤덤함(학생회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이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그리고 질문은 안했지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본다.

이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여학생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의 추억에 잠겨 보았습니다. 99년 2월 9일 오전에 여새터에 가기 위해 명륜길 총여실에 모였을 때, 처음으로 여자 동기들과 총여 언니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연락이 잘 되지 않은데도 여새터 일정이 졸업식과 겹쳐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의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이름 외우기 게임을 통해서로 조금씩 인연을 익힌 우리는 포천에 있는 정동 수련원으로 떠났습니다. 조별로 방배정을 할 때, 조금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우리 올전골 친구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올전 손 들어봐요~"란 말에 손을 들었던 건 저 혼자였거든요. 25명의 새내기 중 올전골 새내기가 저 혼자일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엔 솔직히 약간 걱정스러웠지만, 조별 시간동안 같은 조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자치규약이라는 것이 구성원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새터 성폭력 내규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동을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보이는 학우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학내 성문화라는 것이 사회의 왜곡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장례식을 부르면서 혹시 당황해 하는 후배들은 없는지, 분위기가 좋은데 왜 분위기를 깨냐며 함께 즐거워하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학내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학생회장들로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발을 세워 가해자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발발의 여지가 없는지 그렸을 수도 있다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공개 사과대처와 성폭력 프로그램이행을 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나에게는 그리고 다른 학우들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가해자는 대차보통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제 가해 사실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가해자 집단이 되어 버린다. 피해자 말은 믿으면서 가해자 말은 왜 안 믿는가, 피해자가 양심을 품고 일을 꾸민다. 학생회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차라리 수사기관에 의뢰해라 등등. 어느새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모습을 감추고 내규에 대한 지적과 학생회장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가해자는

잠적될 해버린다. 또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대책위의 논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물론 처음부터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폭력사건의 해결과정이다. 학생회가 가해자에게 정학과 재적같은 징계를 내릴수는 없다. 그럴 권한은 없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은 갖고 있다.

성폭력 학칙제정? 그건 또 뭐야?

내규라는 것이 제정되었기는 하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답은 형성되어있는 그 목표를 바로 세울수 없다. 98년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인터뷰 중 많은 학우들이 어떤 흐름이 학칙이 제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을 했었다. 맞는 말이다. 총여학생회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다. 학칙은 자치규약보다 더 큰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다면 역시 그 목표를 바로 세울수 없다.

학사경과가 1.50 미만이어서 어느날 갑자기 2.00 미만이 되었다면 당황스럽지 않았는가? 성폭력 관련 학칙이 생긴다면 가해자가 잠적해서 해결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하지만 학칙이 단순히 가해자 처벌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문제로 돌려 버리기엔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학내 성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 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대안까지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했다.

첫째날 조별로 상황극을 할 때에 주제가 다섯 가지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조에서 '전철 안에서 치한을 만났을 때'를 선택하여 상황극을 꾸렸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변형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와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성교육 시간에는 우리들의 선배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가진 잘못된 성지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평소 궁금해하고 있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곤란했던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무척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대동제는 기억에서 절대 지울 수 없어요. 그때 우리들의 대동제를 위해 포천까지 오셔서 수고해 주셨던 동물과 언니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단 말을 하고 싶네요. 둘째날 아침 조별 시간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쓴 다음 서로의 글을 읽으면서 자매애를 느끼는 게임인

'글쓰기 마라톤'을 했는데, 우리조의 주제는 '모녀갈등'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 같은 조 친구들끼리 서로 더 많이 이해하여 공감대를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체육 대회 시간에는 팀보, 음료수 굴러먹기, 닭싸움을 응용한 여왕벌 싸움, OX퀴즈 게임 등을 하여 즐겁게 놀았죠.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통해 우리들은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판해 보며 여대생으로서의 의미 있는 대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녀오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노라니,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장 임팩트 도착하여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깨끗하게 밥을 먹었던 우리 1조 (보단 언니는 우리조를 '기동대'라 칭해서 한다고 주장했음) 정도조 친구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문화넷보기



희망을 부르는 여성밴드

아직까지 여성록밴드라는 말을 들으면 생소하고, 여성밴드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 록밴드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모던 록이 유행하며 혼성밴드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성들로만 구성된 밴드도 '멜로디션' '마마캄플렉스' '이브' 등 10여 개 정도이다.



언더 플러에 압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남성록밴드 속에서 차츰 자리를 잡고 있는 여성록밴드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색깔과 음악으로 승부를 하려 하고 있다.

여성 록밴드들은 최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또 아마추어로 자신들만 음악을 추구 하고자 결성된 '노이즈밴드'도 '변신 시멘트귀신'과 함께 언더 중의 언더를 공략하고 있다. '록스타'의 음악은 '라이엇 걸' 음악 '(미국 여성권장운동의 일환으로 여

성운동단체들이 만들어 부른 다소 공격적인 음악)을 추구한다. 그리고 '슈퍼마켓'은 펑크음악을 고집한다. 무정부 저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펑크는 대개 남성 장르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이들은 펑크를 선택한 것 자체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슈퍼마켓'은 고음부분을 살리는 등 여성적 특성을 살린 살리고자 한다.



아직까지 이들이 환영받는 이유는 희소가치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여자 애들이 재밌네'라는 소리를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위의 골치 많은 시선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에는 여차 나가야 할 난관들이 만만치 않다. 언젠가 여성록밴드도 생소하지 않고 그네들의 음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러한 여성록밴드들이 진정 하고싶어하는 음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15대 Herstory 총여학생회 상반기 사업계획서

중점 부분

1. 성폭력관련 학칙제정운동
2. 여성노동권 운동

일상 부분

1. 총여신문 발행
2. 여성학강의 실사평가
3. 생활 도서관 여성학도서 마련

시기별 부분

1. (3월초) 개강 사업
- (4월) 여성실업 워크
2. (5월) 성문학상, 대동제
3. (5월) HERSTORY 학교
4. (그때그때)바로바로 세미나

복지 부분

1. 여학생 휴게실의 자율적 운영
2. 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관리

책·소·개

페미니스트 잡지

if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그 것이 당연한것인양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이 항상 쓰는 가위, 버스에 있는 손잡이 등이 여러 가지가 대다수의 오른손잡이 기준에 맞춰져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는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남성을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다. 왜 돈에는 모두 남자들만 그려져 있어야 하며, 호스티스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호스트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읽는 잡지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이 보아오던 대다수의 잡지가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느냐. 우리는 물론 알지도 못하고 읽고 있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if'라는 페미니스트 저널을 접해보면 지금까지 접했던 잡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f'에서 가지고 있는 발행의 정신은 '웃자!' '뒤집자!' '놀자!'이다. 여자로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고, 이 세상은 너무 많은 남자중심의 틀에 박혀있으며, 고통과 인내, 희생의 지겨운 학습과정을 답습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성들의 노력으로 남성중심이 아닌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저널을 발행한다.

이 저널은 성과 사랑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혹은 문화적 유희가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론의 해박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대다수 여성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 이 저널의 의도이다.



여학생휴게실 광고



여학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유의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휴(여학생 휴게실)로 오십시오
여휴에 오면 여유가 보여요~~
'학생회관 2층, 생자대 3층, 약대 1층, 2공대 지하' 이렇게 4인방입니다.